

# 2024년 1학기 다문화 정책연구학교(신규교) 워크숍

1. 일정: 2024년 6월 28일(금) 11:30~16:30
2. 장소: TAKE호텔 본관 및 별관(U타워)
3. 내용: 이중언어 문해력 진단 및 평가 방법 모색

## 언어 평가의 영향

- 걱정, 떨림, 경직된 장소
- 평가를 통해 동기부여가 되어야 한다.
- 좋은 평가의 경험을 주어야 한다.

## 언어 평가의 특징

- 언어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언어를 의사소통 상황에서 사용하는 능력을 평가해야 한다.
-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추상적이며 분명하지 않다.
- 평가 문항, 채점 기준: 어떤 내용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 이중언어능력의 인지적 이점

### “이중언어 화자”의 의미

- 둘 이상의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
- <최소론> 제2언어로 최소한의 수행 가능
- <최대론> 두 언어의 완전한 숙달도

### 이중언어 습득의 유형

통합적/복합적 이중언어	두 언어를 하나의 환경에서 배움. 하나의 개념에 대해 두 가지 언어 코드를 동시에 습득
조작적 이중언어	두 언어를 다른 환경에서 배움. 두 언어를 모두 사용하지만 각 언어를 다른 체계로 사용 (예_미국에 살면서 가정에서는 한국어를, 학교에서는 영어를 쓰는)

종속적 이중언어	제1언어 체계 하에 제2언어를 배움. 제1언어의 도움 없이는 제2언어를 배우지 못함. (예_번역)
----------	--

### 두 언어 간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이중언어 환경

가산적 이중언어	감산적 이중언어
제1언어 또는 제2언어의 감소 없이 두 언어가 발달되어 잘 유지될 수 있는 환경	제2언어를 습득하면서 다른 언어의 능력이 감소하거나 소멸
사회의 다수 언어를 모어로 하는 아동은 모어 외 유용한 언어를 하나 추가하기 쉬움.	사회의 소수 언어를 모어로 하는 아동은 모어를 상실하고 현지어만 사용하게 되는 감산적 이중언어 환경에 놓이는 경향이 있음.

### 이중언어능력\_과거의 관점

- 이중언어화자가 매우 많음에도, 1960년대 이전까지는 주로 단일언어 화자의 언어와 인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 이중언어화자들은 문제가 있는 특별한 집단으로 여겨짐.
- 이유: 어릴 때 L2를 배워도 언어의 수준이 완벽하지 못했다고 보았음(억양, 사소한 문법의 오류)

### 이중언어능력에 대한 관점의 변화

- 과거의 관점
  - L2는 모국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인지적으로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 L1은 L2으로 전이되지만, L2는 L1으로 전이되지 않는다고 봄.
- 현재의 관점
  - L2언어 습득이 시작된 나이보다는 **숙달도가 중요**
  - **L1도 L2의 영향을 받음**
  - 이중언어구사는 인지과학, 인지신경과학 연구의 중요한 도구

### 왜 이중언어능력을 연구하는가?

- 이중언어 구사는 인간의 매우 집중적이고 반복되는 인지, 심리적 경험의 하나(경험의 연속체), 이는 인간의 mind/brain에 영향을 줌(변화시킴)
- 신경가소성 연구와 큰 연관
- 이중언어 구사는 두뇌에 영향을 줌
  - a. 언어를 사용할 때 L1과 L2 충돌
  - b. 하나의 언어를 '선택'하기 위한 매커니즘(주의집중을 포함한)이 필요
  - c. Language switching이 아닌 **Selective attention**
  - d. Joint activation: 지속적인 충돌, 선택적 집중이 요구됨(집중하는 과정이 뇌를 발전시킨다)

### 이중언어 화자는 어떻게 하나의 언어를 선택할까?

- 이중언어 화자가 하나의 언어만 사용할지라도 두 언어 모두가 활동하고 있음.
- **The bilingual is a mental juggler.**
- 능숙한 언어 수행을 위해 두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하기 위한 경쟁에서 협상이 일어나는 것이라는 과정
- 이러한 조절의 과정은 L1 또는 더 지배적인 언어를 억제하는 과정을 포함할 것이라고 봄.
- 이러한 두 언어를 넘나드는 경쟁 문제의 해결은 인지와 두뇌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정

### 이중언어능력이 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 이중언어화자의 언어 사용의 특징
  - a. 두 가지 언어로 애매모호한 단어들을 읽고 듣는다
  - b. 말하기 위해 하나의 단어를 선택한다.
  - c. 하나의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코드스위치를 한다.
  - d. 두 가지 언어를 넘나들며 의미적 애매모호함을 해소한다.
  - e. 단일언어화자이든 이중언어화자이든 상관없이 더 다양한 화자와 의사소통한다.

애매모호함을 잘 건디는 사람이 더 유창해질 확률이 높다.

### 이중언어 문해력 평가를 바라보는 관점

#### 표준화 검사의 문제점

- 소수 민족 아동들이 전통적인 표준화 검사에서 부진한 점수를 얻음으로써 특수교육 프로그램에 과잉으로 배치되거나, 언어지체나 장애로 잘못 분류되는 현상 발생
- 부진한 검사 수행력이 그들의 진정한 능력을 반영하기보다 서로 다른 모국어와 학교 언어(예, 한국어-영어) 경험의 차이, 여러 다른 학습 경험 또는 교육 기회의 결여 때문일 수 있음.

## L1과 L2 읽기의 상호연결성

- 상호의존가설: 한 언어의 학문적 언어 및 읽기 능력은 다른 언어의 언어 및 읽기 능력의 발달을 촉진한다.
- L1의 읽기 능력이 높은 수준으로 개발되면 L2도 높은 수준으로 측정된다.
- L1과 L2 읽기 능력 사이에는 강한 관계가 있다.

⇒ ! 우리학교에 접목시키기: 모어(모국어)의 읽기 능력을 향상시키면 한국어 읽기 능력도 향상되므로, 그들의 모국어 문해력을 향상할 수 있는 과목, 프로그램, 방과후과정 개설이 필요할 듯.

“장기적 관점”의 중요성 : “Becoming biliterate better, not faster.”

이중언어교육을 혜택의 관점에서 보자면 두 언어를 잘하게 하는 것이지, 빨리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 이중언어 문해력 평가의 방법

이중언어 문해력 평가에 대한 관점

내용 및 과제 수행	상 중 하
글의 전개 구조	상 중 하
언어 사용	상 중 하

---

★ 이중언어 문해력 평가에 대한 관점: **Translanguaging**

- 트랜스랭귀징
- 이중언어 사용자의 각 언어 능력은 단순한 1+1=2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고 증폭시키는 것이라는 관점
- 읽기 평가에서 한국어로 책을 읽으면 반드시 한국어로 응답해야 하는가?
- 이중언어 문해력 평가가 한 번에 한 언어로 수행되어야 하는가?
- 읽기: 이해의 정도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가?

★ 이중언어 문해력 평가와 트랜스랭귀징

- 이중언어 연속성의 시작점에 있는 학생에게는 읽기 평가에서 원하는 언어나 그림 등으로 응답하도록 허용
- 학생과 교사가 이중언어 사전, 그림, 그래픽 조직자 등의 이중언어 자원 활용
- 학생과 이중언어를 공유하지 않을 경우: 선택형 질문, 번역 어플리케이션, 수행 기반 평가(프로젝트 기반 등) 활용

이중언어 학습자들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원을 활용하면서 의사소통하려는 것이다!!

읽기 지문은 이해했지만 한국어로만 표현하게 하는 것은 (혹은 표현을 못했을 때) 그들에게는 너무 과한 요구가 아닐까? 모국어 혹은 그림 등으로 표현하게!

이중언어 문해력 평가에서 트랜스랭귀징 관점을 가지도록!!